

법련사, 제1회 문화환경교실

“저기 재갈매기 보이죠?”
“직접 보니 너무 신기해요”



천수만 B단지에서 주지 보경 스님과 함께 기러기 떼를 관측하는 어린이들.

“흰발 검둥오리가 동동 떠다니고 있는 거 보이죠! 하얀 새는 재갈매기, 시커멓고 머리가 하얀 새가 풀닭, 제일 앞에서 통통거리는 새는 논병아리, 하얗고 큰 날개를 펼치며 날아가는 새는 종대백로입니다.”

눈 앞에서 화사한 자태를 드러낸 철새들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은 김정훈 연구원의

국조류연구소의 설명을 한 가지라도 놓칠까 귀를 쫓긋 세운다.

천수만과 접한 논 쪽에는 기러기 떼들이 보초 기러기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먹이를 먹거나 자고 있다. 김 연구원의 지적에 따라 어린이들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철새들과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는 말뚝기러기 찾

에 여념이 없다. 어린이들은 이어 서산 천수만 철새보호지구대의 전기형 교육부장의 설명으로 천수만에 서식하는 철새에 대한 공부도 했다.

김의준 군(세검정초5)은 “철새를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인데 여러 가지 새를 보고 책에서 봤던 그 새의 특징과 동거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법련사(주지 보경)가 주최한 제 1회 법련사 문화 환경교실은 11월 21일 천수만 겨울 철새 기행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다.

이날 철새 탐조에 앞서 50여명의 어린이 탐조단은 김용 박사(경희대 연구원)의 역

50여 어린이 천수만서 철새 탐조
“생명 중요성 생생하게 느껴요”

사해설을 들으며 해미읍성과 서산 부석사를 탐방했다.

김정훈 연구원은 “탐조여행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지만 사찰이 주최하는 행사는 처음”이라며 “어느 종교보다 생명을 중요시하는 불교에서 실제 체험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경 스님(법련사 주지)은 “천자연적인 프로그램으로 불교에 관심있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 2회 법련사 문화·환경교실은 ‘세계 회귀 조류들의 낙원인 민통선지대의 두루미 관찰’을 주제로 12월 19일 열린다. (02)733-5367 글·사진=김지연 기자

심인합창단 창립7주년 음악회



진각종 총금강회 대전지부(지도스승 대승심인당 주교 해인) 정사는 11월 24일 대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대전교구 심인합창단 창립 7주년 기념 정기 음악회(사진)를 개최했다.

5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음악회는 현악4중주, 합창, 독창 등으로 진행됐다.

해인 정사는 “앞으로도 지역포교에 일익을 담당하며 음성포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원주 대원사 10차 중창 회향

원주 대원사(주지 석문)는 11월 20일 명부전, 향적당을 중창하고 제10차 중창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대원사 창건 1344주년을 맞아 열린 회향법회에는 지역사암 스님과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대원사 중창을 축하했다.

이날 법요식에서 금산사 주지 평상 스님은 “자동차가 닿지 않는 산중사찰이기에 수천장의 기와를 신도들이 직접 옮겨 이룬 불사여서 더욱 뜻이 깊다”며 “불사하는 마음으로 정진에 일해 수많은 이들에게 보람이 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나주 동원사 천운당 낙성식

나주 동원사(주지 덕현)는 전통사 문화관 ‘천운당’을 건립하고 11월 19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전국에서 차인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낙성식에서 덕현 스님은 “차와 선(禪)은 물이 아니며 천운당은 차와 선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천운당 낙성을 기념, 한국무용가 나금자 씨의 살풀이춤 공연과 원광대 영암 다례원의 현대 다 및 차 시흥회가 열렸다. 이준엽 기자

원경사 약사불·사천왕 점안

이천 원경사(주지 일봉)는 12월 5일 청동 약사여래불과 사천왕 점안 및 사천왕문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높이 8m의 청동으로 제작된 약사여래불은 대웅전 앞마당에 자리 잡고 사천왕문은 전통목조 맞배양식으로 건립된다. 사천왕은 높이 4m 크기로 조성됐다.

원경사는 이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을 위해 오전 9시 서울 상봉버스터미널 팔각정에서 경내까지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다. (031)641-6311 www.wonkyungsang.com

광주교도소 찬불가·독경 대회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원장 정암)은 11월 24일 광주교도소에서 ‘제5회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사진)’를 개최했다.

300여명의 수용자가 참석한 이날 경연대회에는 독경 10개팀, 찬불가 7개팀이 출전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독경 부분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법성경’ 등 경전과 ‘다라니’ ‘장엄염불’ ‘지장경’ 등의 염불 독경이 선보였고 ‘아이들을 위한 발원문’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찬불가 부분에는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팀이 출전했다.

대회에 앞서 총무원장 정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을 염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이다”며 “항상 불보살님의 명호를 염하며 참회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엽 기자

“봉선사가 인터넷에 들어갔다”

‘봉선사에 가면 나만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꾸며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인터넷 홈페이지(www.bongsunsa.net)의 ‘또 다른 세상, 나만의 법당’이 그곳.

봉선사는 11월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3D 그래픽을 이용해 사실적으로 묘사한 사이버법당을 개설했다.

3D ‘나만의 법당’ 개설
불사금, 모바일 결제 도입

‘나만의 법당’은 법당의 기본적인 기능인 참배와 기도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폼메일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 봉선사에 초대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서울에 살고 있는 부인과 남극기지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그들만의 법당’에서 언제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모바일 결제방식을 도입해 불교계 최초로 휴대전화를 통한 보시 또는 불사 동참이 가능해진 점도 눈길을 끈다.

봉선사는 1년여의 연구개발을 거쳐 완성한 ‘나만의 법당’을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는 한편, 2단계 불사로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지장전 법당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봉선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배움·참여·신행과 만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움의 마당’은 교종본찰의 전통을 잇는 코너로, 출·재가자들의 교학연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참여의 마당’은 봉선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도록 해 ‘공개실림’과 ‘화합’의 정신을 구현한 코너.

또한 ‘신행과 만남의 마당’은 공지·새소식, 신행단체, 신행상담, 동아리, 자유게시판 등으로 꾸며진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인터넷을 통한 포교와 사이버 신행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영 기자

“수행·복지·교육 3박자 맞췄죠”



단양 금수사는 매년 한 두차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 경로잔치를 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경로잔치에 앞서 열렸던 법회 모습.

단양읍에서 8Km 정도 떨어진 매포읍 우덕리에 위치한 금수사.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평온하고 따뜻하다.

아직은 대중교통편이 많지 않아 다소 불편하지만 그래도 금수사를 찾는 사람들은 많다. 단양과 매포는 물론이고 서울 신도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훌륭한 수행·기도도량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금수사는 여기에 안주하

설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스님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매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위안잔치를 여는 등 평소 노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스님은 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부처님 곁에서 머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다.

납골시설 조성도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다. 현재 관음전 앞에 300여기의 영탑이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의 부지를

중부 최고도량 원력 중창불사 계획 마련

납골당 건립·서울에 포교당 개설 발원

지 않고 중부권 최고의 수행·기도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 종합 계획을 마련, 도량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웅전과 조 사진영을 모시고 있는 적묵당을 완공한 데 이어, 2007년까지 관음전과 지장전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대웅전 뒤편 삼성각 자리에 스님과 재가자들이 수행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40평 규모의 선방도 지을 생각이다. 이들 불사가 끝나면 금수사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어디다 내보도 손색없는 사격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주지 해광 스님은 한 발 더 나아가 금수사를 공원같은 휴식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노인복지시설과 납골시

조성 중이다. 납골문화가 바람직하다는 소신도 소신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금수사가 계획하고 있는 또 한가지 중요한 불사는 서울에 포교당을 개설하는 것이다. 내년 9-10월 경 개원을 목표로 현재 동서터미널 부근에 부지를 마련하고 불사를 추진 중이다. 서울에 포교당이 마련되면 서울 신도들이 금수사까지 내려와야 하는 불편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포교까지도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3-4년 후면 금수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 지금 이 지역 불자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단양=한명우 기자

Advertisement for 'Buddha TV' featuring a Sri Lanka Buddhist pilgrimage tour. It includes a map of Sri Lanka, a list of 8 tour stops with descriptions, and photos of the tour leader and participants. The tour dates are 2004. 12. 13 (Wed) to 12. 20 (Wed), lasting 7 days and 8 nights, with a total cost of 1,620,000 won. The tour leader is Do Hyun-sik, and the tour is organized by Buddha TV.